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재조명

- 일본의 경제논문 및 신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요약문

이선복 동서대 교수

본 연구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가 일본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논문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완성의 단계에 이르지지는 못했지만, 조사를 통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에 불과하여, 당초 기독교 관련 관심과 지식이 필요한 베버의 명제에 대해 관련 연구가 적을 수도 있겠다는 예측과 달리, 단행본 저서를 포함 상당수의 선행 연구 축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츠카(大塚)의 1989년 번역부터 시작해 최근 2020년에도 관련연구가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 둘째, 기독교 국가는 왜 잘 사는가? 미국의 상황을 포함, 일본내에 위와 같은 인식이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오와(大和, 2005) 연구처럼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이에 베버의 연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서구 논문의 인용에서부터 시작해, 일본 고유의 유교적 충(忠) 정신과 집단 의식, 신도(神道) 등의 종교와 비교해 그 우의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볼 수 있었다. 이는 특히 1989년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해 온 일본인 만큼, 일본식 경영방식과 연결해 주장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셋째로, 베버의 명제를 비판한 논문 중에는 충분한 신학적 이해 없이 논리를 전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볼 수 있었다. 베버의 논문을 번역하면서 깊은 신학적 성찰,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성경적 논리나 종교개혁 이후 칼빈의 기독교강요 등 개혁 신앙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번역이 되어 베버의 본래 의도가 과소 평가되고,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염려해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일본은 1854년에 맺어진 미일화친조약을 계기로 개신교 복음이 전해지고, 1872년에 요코하마에 최초로 일본기독교교회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며 부흥을 시작했다. 그러나 1920-30년대 전시 상황이 되며 여러 교파가 일본기독교단(日本基督教團)으로 통합되고, 수난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다(小野靜雄, 1986).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신학사상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전후(戰後) 일본은 1990년에 버블경제가 무너지기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미츠비시, 소니, 마쓰시타와 같은 기업을 만들어 내고, 시부사와(渋沢栄一)와 같이 500여개 회사를 설립하는 기업가(起業家)를 탄생시키고, 미국에 이어 제2위 GDP국가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번 학술대회의 주제가 위기시대인 것처럼 일본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1989년에

시작된 저성장이 헤이세이(平成) 30년동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성장의 이유가 무엇일까? 전시체제 속 많은 교회가 협력을 요구당하였다. 일본의 경영방식은 개인 주주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배려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주식상호보유, 주거래은행, 종신고용, 연공서열 등 미국과는 다른 형태를 보였으며,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주목하기도 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경영이 일본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과거 일본 크리스천 경영자를 살펴보면 소니의 이부카(井深大), 파이오니아의 마츠모토(松本望), 모리나가의 모리나가(森永太一郎), 라이온의 고바야시(小林富次郎), 아마자키빵의 이이지마(飯島 延浩) 등 신실한 그리스도인 많이 있었다(이선복, 2020). 시부사와도 『논어와 주판』의 유교적 이념을 통해 경영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이선복, 2023). 본 연구는 전시체제에 일본 교회가 수난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으면서도, 그 교회들이 새롭게 비전을 발견해 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학이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날 시대를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라 부른다(신국원, 2021). 이는 계몽주의 이후 이성과 과학을 절대시하던 패러다임이 해체되고 개인과 다름을 모두 인정하는 사고가 중심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원하면 이는 전시체제에 협력을 요구하던 내용이 지금도 요청한다면 가능할까?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해야만 하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 보호할 책임을 있다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은 국가의 위정자를 따르고 그 질서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함을 강조하며, 영역간 침범을 하지 않도록 즉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되 교회나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협력을 이루어 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기독교 사상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도 깊숙이 반영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막스 베버 이론의 재조명, 그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연구 재조명
- 일본의 경제학 논문과 기독교적 함의를 중심으로 -

이 선복 1)

< 목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2.1 막스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개요

2.2 선행연구와 차별성

III. 일본에서의 막스 베버 PESC 연구

3.1 PESC 단행본

3.2 PESC 경제학논문 분석

3.3 오오와(大和) 연구

IV. 막스 베버 PESC 연구의 재조명과 확장적 함의

4.1 일본 개신교의 특성과 PESC 관계

4.2 일본 경제의 변천과 경영방식, 그리고 PESC 관계

4.3 일본의 직업 노동윤리와 PESC 관계

V. 결 론

1)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blee6@hanmail.net

I. 서론

본 논문은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이하 PESC라 함)』에 관한 연구와 관련, 일본의 주요 문헌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갖는 경제적·신학적 함의가 무엇인지 답론을 정리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베버는 1904년과 5년에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에 2회에 걸쳐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 시작된 칼빈주의(Calvinism) 사상의 예정론과 금욕적 신앙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즉 칼빈의 구원 교리가 금욕주의를 이끌어 내고 청교도들의 도덕적 의무가 직업적 소명으로 나타나 근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가설이 가톨릭 국가나 동양권 국가 등이 아닌 개신교 비율이 높은 영국, 미국, 네델란드 등에서 집단적으로 보임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베버의 가설은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일까? 기독교적 윤리가 보편적이지 않는 나라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에서는 베버의 PESC 가설을 일본에 적용하여 그 함의를 살펴 보았다. 일본은 1945년 전후부터 1989년까지 고도의 성장을 경험한 선진국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30년간 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저성장을 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없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상황을 사례로, PESC가 갖은 의미를 경제적·신학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데에 있다. 아울러 베버의 PESC 자체가 갖는 의미와 문제점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 이어,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PESC의 개요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3장은 PESC에 관련된 일본의 문헌과 그 내용을 소개한다. 4장은 베버의 PESC 연구에 관한 재조명으로, 일본의 개신교 역사와 경제적 변천과정 등을 토대로 그 경제적·신학적 함의를 검토한다. 5장은 결론으로, 요약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답론을 논함에 있어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신학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PESC)』의 개요

막스 베버의 논문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1904년과 1905년 2회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그의 사망 후 1920-1년에 『종교사회학 논문집』 제1권(1920)에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실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원전은 독일어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us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J. C. B. Mohr, Tübingen, 1920”이며, 1976년에 영어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 Parsons, Charles Scribner’s Sons, New York” 로 번역되었다. 우리나라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번역이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박성수(2021)의 번역을 주로 사용하였다. 즉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베버는 서구 근대자본주의 발전의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살펴보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근대 유럽 도시의 중산 시민계층 다수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배경으로 칼빈의 예정론에 근거한 종교적 형태의 금욕적 직업윤리가 긍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제시하였다.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등 타 종교와 달리 직업적 소명을 중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도덕적 의무인 직업(노동)에 충실하고, 이윤추구의 허용과 함께 사치를 줄인 것이 산업자본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베버는 부기의 방법을 이용한 합리적 경영이 근대자본주의의 형성에 도움이 제시하였다. 베버의 가설은 당시 자본을 저술한 마르크스가 자본가와 노동자 그룹을 구분해 공산주의 사상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이에 대응한 논문이라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그리고 논문 발표 이후, 지금도 논쟁과 비판도 회자되고 있어 그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2.2 선행연구와 차별성

본 연구는 구체적인 담론에 앞서 베버의 PESCE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 먼저 강성화(2006)의 경우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별책으로 129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베버의 생애와 저작부터 시작해 자본주의 정신, 직업, 프로테스탄트즘의 윤리의 목차로 PESCE 내용 전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윤진숙(2010)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금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직업윤리는 사회과학 방법론 중 이념형에 따른 것이며,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객관적 연관성이 있다는 인과성도 사회과학방법론 중 하나로, 베버가 종교에 대한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근대 사회의 물질문명의 근원을 해명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김홍섭(2015)은 칼빈의 경제, 경영 사상과 현대적 적용이란 주제로, 베버 논문의 배경이 된 칼빈의 사상을 종합하여 오늘날에도 정의와 공평, 경제적 빈부 격차의 심화, 사회계층간의 갈등 확대, 고용과 임금, 시장의 자유와 균형, 토지의 공공성 등 에 중요한 사상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표1〉 막스 베버의 PESC 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구분	논문
베버소개 긍정평가	강성화(2006),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윤진숙(2010),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김홍섭(2015), 칼빈의 경제, 경영 사상과 현대적 적용
일부비판	김영태(2011),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기원론’ 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리연구, 김주한(2018)은 ‘종교개혁과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의 관점과 기독교적 의미’
타종교 비교비판	지근욱 황태연(2023), 베버의 유교사회론과 중국자본주의불가론에 대한 일(一)고찰 정지욱(2015)은 일본의 이시다 바이간과 막스 베버에게 보이는 ‘이윤추구의 정당성’
기독교신학 적비판	양낙홍(2013),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의 신학적 분석 과 평가, 「성경과 신학」

그러나 비판적 논문으로 김영태(2011)는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기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란 주제로, 자본주의가 오늘날 무한 질주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할 것을 예견해 대비하지 못했음은 물론, 자본주의 기원이 인도, 중국, 바빌론, 중세 가톨릭의 수도원에서 소급하여 찾을 수 있고, 특히 종교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주한(2018)은 종교개혁과 자본주의 정신-막스 베버의 관점과 기독교적 의미란 주제로 칼빈과 칼빈주의가 자본주의 경제에 끼친 영향력을 수용하나, 자본주의의 효시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타종교와의 비교 관점으로 지근욱 황태연(2023)은 베버가 유교 윤리를 자본주의의 성장을 방해한 요소로 주장한 점에 대해, 이는 공맹철학의 견지에서 중국과 유교윤리에 대한 베버의 물이해를 밝히고 서구중심주의적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였다. 정지욱(2015)은 일본의 이시다 바이간과 막스 베버에게 보이는 이윤추구의 정당성논리를 비교하며, 경제행위가 도덕적 바탕 위에서 행하여지고, 이윤추구의 정당성을 인간을 초월한 절대자에게 귀속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양상을 보이나, 그 도덕이 신에 대한 도덕이냐 인간 공동체 속에서의 도덕이냐 라는 차이를 보임을 제시하며 베버 연구의 한계를 주장했다.

한편 양낙홍(2013)은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신학적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로, 칼빈과 신자들이 시간 허비를 피하면서 근면하게 노동하고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절약하며 엄격히 경건을 실천했던 만큼, 자본축적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보았다. 그러나 칼빈파가 소명을 구원의 확신 수단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직업을 포함한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의식에서 충성스럽게 소명에 임

했다고 보는 것이 칼빈주의 신학에 부합하며, 성경과 칼빈주의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서 종교적 이슈가 핵심을 이루는 주제를 다루는 사회학자 베버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비판을 하였다.

〈표2〉 일본 기독교 선교관련 선행연구

구분	논문 / 문헌
일본선교 논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선복(2020.6), 한일의 거시경제 변화와 선교적 함의 고찰, 2. 이선복(2020.11),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일본 CEO 경영 연구” 3. 이선복(2023.3), 기독교 대학 설립의 선교적 의미: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4. 이선복(2023.6), 일본의 신학교 및 신학교육에 관한 현황 분석과 함의 고찰 5. 李善馥(2023.9), 韓日における基督教信仰の比較の意味: 基督人經營者と經濟指數の變化を含めて 6. 이선복(2023.12),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 『시부사와 에이이치』와 기독교 사상 연결점 고찰
기타 주요문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송영목(202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차원적 읽기, 향기도서출판 2. 사와 마사히코 (1995). 일본 기독교사, 대한기독교서회 3. 小野靜雄(1986), 日本プロテスタント教会史, 김산덕역(2012), 일본교회사 4. John Calvin(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역(2018), 기독교강요, 5. Max Weber(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202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본 연구는 일본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연구를 위해 [〈표2〉의 선행연구를 추가로 참조](#)하였다. 연구의 차별성은 〈표1〉이 국내 PESCS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표2〉가 일본의 기독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이 2개를 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 점에 있다. 즉 국내 PESCS 문제를 확장하여 일본에 접목하되, 단순히 관련 경제학 논문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의 기독교 역사와 신학적 사상까지 다루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논문의 내용을 확장하며 [일본의 기독교와 신학은 시즈오\(2012\)의 『일본교회사』, 칼빈의 예정론 교회와 금욕주의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로날드 S. 웰레스의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송영목\(2024\)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차원적 읽기』, 청교도 사상은 제임스 페커의 『청교도 사상』과 양낙홍의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을 참조하였다.

Ⅲ. 일본에서의 막스 베버 PESc 연구

3.1 PESc 단행본

본 연구는 일본의 베버 PESc 연구를 알아보기 위해 [1단계로 2023년말 현재 일본의 대표 서점 중 하나인 기노구니야\(紀伊國屋書店\)의 웹사이트를 통해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 막스 베버와 관련한 일본내 주요 단행본 문헌

구분	단행본
경제주제 단행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츠카역(大塚,1989),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와나미서점 2. 카지야마역(梶山,1994),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미래사 3. 시나(椎名,1996),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 베버 테제의 종교사적 비판』, 도쿄대학출판회 4. 나카야마역(中山,2010),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넷케이 BP 5. 마츠다(松田,2010), 『막스 베버의 경제사학을 잘 아는 책』, 슈와 시스템 6. 하시모토(橋本,2019), 『해독 베버, 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고단샤
기타주제 단행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이리(羽入,2002), 『막스 베버의 범죄-『윤리』 논문의 자료조작 사술과 지적 성실성의 붕괴, 미네르바 서방 2. 오리하라(折原,2003), 『베버학의 추천』, 미래사 3. 나가베(長部,2008), 『막스 베버 이야기 - 20세기를 간파한 남자』, 신초샤 4. 하이리(羽入,2007), 『막스 베버의 슬픔 - 일생을 어머니에게 탐닉당한 남자』, PHP 연구소 5. 고바야시(小林,2015), 『막스 베버 강의』, 유이가쿠쇼보 6. 노구치(野口,2020), 『막스 베버 - 근대와 격투한 사상가』, 중앙공론신사 7. 이마노(今野,2020), 『막스 베버 - 주체적 인간의 희비극』, 이와나미 서점

첫째, [베버 관련 연구는 경제에 관한 단행본과 기타 단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의 경우 1989년에 오츠카\(大塚\)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번역하여 이와나미\(岩波\)서점에서 출판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적어도 7개가 출간되었다.](#) 기독교인 인구가 적은 상황과 관계없이 자본주의 정신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베버의 저서에 대해 다양한 관심속에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나(1996)의 경우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에 대한 명제를 종교사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도쿄대학출판회를 통해 출간하였다. [그리고 후자는 베버 개인의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둔 저서가 7개 발견된다.](#)

그리고 그중 예를 들어 [오오츠카\(大塚,1989\)의 목차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4〉 막스 베버와 관련한 일본내 주요 단행본

오오츠카역(大塚,1989)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목차

1. 막스 베버란
2. 베버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해설
 - 2.1 종교적 시대배경
 - 2.2 자본주의 정신
 - 2.3 개신교의 윤리 ; 예정설/ 합리주의 / 자기억제 / 천직
 - 2.4 현대사회의 문제점
3. 베버『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정리

19-20세기에 자본주의가 크게 발전하며 유럽의 많은 나라가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베버는 출현한 부유층의 대부분이 개신교 교인임을 발견하였다. 개신교인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비율도 가톨릭보다 높고, 엄격한 종교적 윤리를 받아들였다. 베버는 사람들이 종교의 가치관이 자본주의와 관계없다 생각하는 것과 달리, 개신교의 윤리적 가치관이 세속에서 더 열심히 살고 노동을 하게 해 경제적 우위를 제공하고 있다 주장하였다. 그리고 베버의 개신교 윤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예정론에 기초하고 있다. 예정론은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사상이다. 마지막으로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으로 합리주의와 이윤추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신교는 가톨릭에 비해 경제적인 합리주의를 추구하고, 복식부기에 기반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이 실려 있다.

3.2 PESc 경제학논문 분석

본 연구는 제2차 조사로 Google 정보와 CiNii (<https://cir.nii.ac.jp/>)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다음 25개 PDF파일 논문을 얻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5>.

첫째는 경제학적 접근의 논문으로, 오오와(2005)의 자본주의 발전과 종교윤리 및 개인주의부터 시작해 오카자와(2015)의 근대경제 에토스 형성, 오츠카(1984)의 근대 자본주의 생성 등이 보인다. 둘째, 기독교적 접근으로 보이는 논문은 비교적 적으나, 이토(2018)의 자본주의에서의 종교정신, 우에노야(2016)의 개신교 직업윤리와 천직 개념, 모리(2020)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세속화 사회와의 관계 등이 보인다. 셋째는 타종교 및 일본과의 관련성으로 이케다(1970)의 아시아의 종교 및 일본의 종교적 위상, 오가사와라(1981)의 일본근대화 와 정토진종의 논문이 보인다. 넷째는 사회학적 및 기타 접근으로 아사쿠라(1975)는 국가론과의 관계, 우에야마(1977)는 권력과 인권, 오구라(1974)는 민중의 생활태도, 간노(1971)는 합리성, 호소야(1966)는 관료제론, 오리하라(1965)는 혁명, 마키노(2002)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모리(1983)는 교육사회학의 관점에 막스 베버와 관련한 연구를 하였다.

〈표5〉 막스 베버와 관련한 일본내 주요 단행본 문헌

구분	논문
경제학적 접근 (6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오오와 마사노리(大和,2005), 자본주의적 발전과 종교윤리 및 개인주의와의 관계:주요 논쟁의 개관 —, 데이쿄 국제문화 2.오카자와 켄이치로(岡澤2015)베버의 종교관 —“근대의 경제 에토스”의 형성 —, 나고야 학원대학논집 사회과학편 3.오츠카 히사오(大塚,1972),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재론, 일본학사원 회보 4.구라모토 시노부(蔵本,1984), M·베버의 근대 자본주의의 생성에 관한 테제에 대하여-특히 F·랏파울의 비판에 관련 하여-, 정경논문집 5.고바야시 준(小林,2001), 막스·베버연구의 현재, 경제학사학회연보 6.호시 토시로 (星,1995), 경영윤리에 대한 고찰 - 막스 베버의 소설을 돌이켜 일본경영 윤리학회지
기독교적 접근 (4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이토오 아키(伊藤,2018), 자본주의에서의 종교정신, 관동학원대학 2.우에노야 타츠야(上野山,2016), 개신교의 직업 윤리와 천직 개념의 전개 — 관리 및 프로 정신과 관련을 중심으로 3.모리 요시 케이치 (森喜,2020), 프로테스탄티즘과 세속화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한 고찰, 기독교학 연구실 기요 4.카츠마타 마사나오(勝又,1992), 서양적 주체성의 계보학으로 베버 종교 사회학, 생활사에서 본 『종교사회학』
타종교와 비교 (4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아라카와 토시히코(荒川,2003), 베버의 종교사회학의〈정통과 이단〉 2.이케다 아키(池田, 1970), 막스 베버의 아시아 종교 분석의 기본적 틀 —특히 일본 종교의 위상을 둘러싸고 3.오가사와라 마코토(小笠原,1981), 일본의 근대화화 정도진중, 막스 베버적 문제의식 및 분석시각과의 관련에서 두세명의 문제에 대해서 4.시모노 하즈키(下野,2019), “종교와 과학”에 관한 역사적 고찰, 현대종교
기타 사회학적 접근 (11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아사쿠라(朝倉, 1975), 국기와 사회변혁-M. 베버의 “국가론”에 보는 사회 변혁의 여러 모습 2.우에야마 야스토시(上山,1977), 베버 사상의 권력과 인권-사회사적 분석을 중심으로, 법철학 연보 3.오구라 미츠오(小倉,1974), 자본주의의 정신론과 사회주의 정신, 사회 변혁과 민중의 생활 태도에 관한 비교 사회학적 하나의 고찰 4.칸노 마사루 (菅野,1971), M. 베버에 있어서의 근대사회의 「합리성」에 대해서 - 형식 합리성」과 「실질 합리성」의 문제, 사회학평론 5.호소야 타카시 (細谷,1966), ‘현대’와 베버의 관료제론, 사회학평론 6.무라카미 후미지(村上,2012), 막스 베버의 학문적 생애와 사회조사, 현대사회학연구 7.오리하라 히로시 (折原,1965), 막스 베버와 변경 혁명의 문제, 사회학평론 8.마히로시(間宏,1975), 문화와 기업인 활동에 대한 여러 이론 검토, M. 베버 이후의 이론적 전개, 경영사학 9.마키노 마사히코 (牧野,2002), 베버의 정치 이론 -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중심으로, 연보정치학 10.미토마 토시유키(三笥,2019), 막스 베버와 ‘근대문화’ - ‘윤리’ 논문은 무엇을 묻는가 (1) - 먼도기와 근대문화, 릿메이칸산업사회논집 11.모리 시게오(森,1983), 베버의 교육사회학-교육시스템 이론 계보와 과제(2), 교육사회학연구 제38집

즉 베버의 사상 및 PESC와 관련해 경제학적 측면은 물론 기독교적, 타종교와의 비교학적, 기타 사회학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또 개신교적 분석 관점의 논문보다는 기타 사회학적 관점의 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3 오오와(大和,2005) 연구

아울러 PESC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나를 보기 위해 특히 오오와(大和,2005)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종교윤리 및 개인주의와의 관계:주요 논쟁의 개관」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티즘의 개신교가 영국, 네덜란드와 벨기에, 미합중국 등 지역에 퍼졌다. 개신교는 존 칼빈(John Calvin)의 교리를 기반으로 한다. 칼빈은 16세기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한 종교개혁자로, 이들은 16, 17세기에 유럽으로 퍼져 네덜란드는 고이센(Geuzen), 잉글랜드는 퓨리탄(Puritan, 清教徒),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프랑스는 위그노(Huguenot)가 되었다. 그리고 종교개혁 속에 신의 부르심(calling)에 따른 직업 즉 천직(天職)의 개념이 생겨나고, 수도원 생활뿐 아니라 세속의 직업을 통해 신에게 부여받는 소명을 이룰 수 있다는 금욕적 윤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루터주의는 직업이란 용어를 만들면서도 금욕적이 않았던 것에 비해, 칼빈주의는 이를 일상의 삶과 연결해 금욕적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이 내적 금욕을 개인 윤리가 아닌 사회 윤리인 에토스(ethos)로 만들었다. 그러면 세속적인 내적 금욕이나 천직이 영리의 추구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어떻게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과 윤리로 전환된 것일까? 베버는 칼빈의 예정론(豫定說, predestination)에 주목하였다. 예정론은 내세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그 택함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오직 하나님의 결단에 의한 것이며 교회나 성직자가 관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요해진 것이 개인의 순수함, 주술로부터의 해방, 금욕주의, 합리적인 생활태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정신적 고독에 대한 긴장을 만들며, 불안에서 벗어나 택함을 받았다는 자기확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생활과 직업(노동)에 충실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 신자들이 열심히 사업을 통해 얻은 부(富)를 부인하지 않고, 반대로 그것을 신의 뜻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리고 사업가의 이윤추구가 허용되고 사치적인 소비가 금지됨에 따라, 자연히 그 이윤이 생산에 재투자되게 되었다. 또 이러한 개신교적 에토스는 근면하게 일하여 자본형성에 힘쓰는 기업이 정신과 연결되고,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정신은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으로, 베버는 그 특징을 부기 방법을 기초로 한 합리적 산업경영과 그에 따른 영리활동, 즉 이윤추구의 영위로 보았다. 그리고 이 정신을 잘 활용해 기업경영을 확대한 사람은 근대 산업경영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

람은 스스로 노동자가 됨을 말하며 자본가는 물론 노동자의 정신도 중시하였다.

한편 오오와(大和,2005)는 베버의 이러한 가설에 대해, 영국 사회학자 고든 마셜의 「자본주의 정신의 탐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을 하였다.

첫째,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 내지는 그 행동이 종교개혁을 밀어붙인 칼빈과 다른 개신교인에게 전형적으로 보인 것이 사실인가이다. 베버의 논의는 개신교의 대표적인 설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 목사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의 설교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고 있어, 이러한 편향이 소명이나 예정설을 과대하게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역사가 하이마와 같은 비판으로 베버가 말하는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은 네덜란드 칼빈주의의 본질과는 다르다. 잉글랜드 퓨리탄이 예정설을 어떻게 해석하던 칼빈주의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둘째는 그러한 윤리 또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 결과로 자본주의 정신 내지 그 행동이 탄생한 것이 사실인가이다. 부기(簿記)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영리활동은 독일의 경제학자 쾰바르트(Werner Sombart)가 처음부터 비판한 것처럼 종교개혁 이전부터 각지 비즈니스 사회에서 볼 수 있었다. 또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에 근거한 경제적 동기를 근대 자본주의 정신으로 하고, 거기에 근거한 행동을 자본주의적 행동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전통적 정신에 의한 영리 행동에 대해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에 의한 영리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실증하고 있지 않다,

셋째는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적 발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그 가설에 대한 비판이다. 베버 자신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역사가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보다 이전에 그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했고, 베버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종교 이외의 많은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 다만 이것은 역사가의 이해이며, 사회학자는 베버의 일반 사회경제사 등 다른 논문을 읽으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인과관계는 독선적일 뿐. 자본주의의 여러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금욕적 행동은 있었지만 이는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 낸 것이다. 잉글랜드 퓨리탄은 비정상적으로 많이 있었고 또 성공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공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활동으로부터 쫓겨나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쌓아 재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으로,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적 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베버와 반대의 인과관계, 즉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비판 내용이 제시되었다.

IV. 막스 베버 PESc 연구의 재조명과 확장적 합의

그러면 베버의 PESc에 관한 연구를 일본에 적용할 경우 그 확장적 합의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설명을 위해 앞의 내용을 종합하여 요점을 다음 3개로 나누었다. 첫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작동하는 나라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를 대신하는 윤리가 무엇인가? 둘째,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는가? 사유재산과 이익 추구가 인정되고, 생산수단과 산업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자본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직업에 대한 충성과 기업내 노동에 대한 봉사나 성실성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하, 본 연구는 담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1 일본 개신교의 특성과 PESc 관계

일본은 1854년에 미일화친조약이 체결되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전래되었다. 1859년에 미국장로교회의 J.C. 해본 부부와 미국과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의 S.R 브라운. 그리고 1861년에 J.H 바라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며 1872년에 최초로 개신교 교회가 요코하마에 설립되었다(이선복, 2024.5). 그리고 이것이 일본기독교교회(日本基督公會)가 되고, 종교개혁 이후의 복음주의 및 개혁 신앙으로 연결되었다(小野靜雄, 1986, 31-58). 그러나 일본의 기독교는 쇼와(昭和, 1926-1989) 시기 전시체제가 되며 수난을 경험하게 된다. 1941년에 장로교 등 여러 교파가 일본기독교단(日本基督教團)으로 통합되고, 종교단체법(1939)에 의해 국가권력에 협력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小野, 341-364). 천황숭배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장로교 침례교 등과 같은 부제(部制)가 해체를 당했다. 그리고 1945년 패전 후, 종교단체법의 폐지와 함께 새로운 재건이 모색되었다. 신도(神道)의 지령이 개정되며 공무원의 공적 참여가 금지되고, 교리에 의한 군국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이 금지되었다. 연합군사령관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기독교적 사명을 갖고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융합을 도모하였다(小野, 467-483).

<표1> 일본의 종교단체와 법인 현황

(2021.12.31.현재)

	종교단체(A)		종교법인(B)		(B/A)	신자수	비율
	단체수	비율	법인수	비율			
신도계	87,072	41.3	84,316	46.9	96.8	87,236,585	48.6
불교계	83,988	39.9	76,774	42.8	91.4	83,242,856	46.4
기독교계	8,567	4.1	4,765	2.7	55.6	1,967,584	1.1
기타	31,119	14.8	13,703	7.6	44.0	7,113,088	4.0
합계	210,746	100.0	179,558	100.0	85.2	179,560,113	100.0

* 출처: 文化庁(2022), 宗教年鑑 令和4年版、文化庁, p.33-35을 기초로 작성

2021년 12월말 현재 일본의 종교인수는 총인구 1억 2,263만명의 1.46배인 1억7,956만명이다(문화청 종교연감, 2022). 기독교인 수는 약 1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 수준으로 낮다. 개신교로 한정할 경우 0.4%로 복음화율은 더욱 낮아진다. 즉 일본은 개신교 신자수 비율 0.4%가 나타내듯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작동하기 매우 힘든 나라임이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면 위 제1 질문에 대한 일본 개신교와 PESc의 관계와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본의 자본주의는 에도시대에 성립된 경제사회가 토대가 되었지만 메이지 이후 서구화 근대화과정에서 발전되었다. 또 이때 유교, 특히 일본식 유교가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메이지유신의 사상적 준비한 것은 막부말기 유학(儒學)이지만, 도쿠가와(德川)시대에 유교가 무사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며 가르침의 덕목으로 충(忠)을 중시한 것이 내셔널리즘의 요인으로 이어져왔다. 그리고 유신 후 서양학이 도입되며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다가 메이지 후기 서구주의에서 내셔널리즘으로 이행하였고, 1945년 패전으로 아메리카니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이도 고도경제 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내셔널리즘으로 전환되고, 일본적 경영이라 불리는 일본의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일본이 왜 성공했는가? 경제학자 모리시마(森嶋通夫)는 일본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을 내셔널리즘의 중심이 된 일본형 유교로 보았다. 원래 중국은 유교 덕목으로 “인(仁)”을 중요시한 반면, 일본은 “충(忠)”을 가장 중시하여 내셔널리즘적인 유교로 발전해 왔다. 또 도교에서 변신한 신도(神道)와 불교도 국가의 지배체제 옹호 경향을 가졌으며, 이들이 내셔널리즘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본의 유교는 주지주의적, 합리주의적이며 근대과학과 양립할 수 있었고, 관료 주도형 사회를 모델로 하여 메이지 유신 후에는 화혼양재형(和魂洋才型) 자본주의, 국가주도형(國家主導型) 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

즉 PESc의 특징은 에도시대의 가족소유경영과 상인의 가훈, 정토진종과 같은 소수 종교를 통해 금욕적 윤리 또는 직업적 근면성이 보였으나, 그것이 제한된 것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종교성향은 오히려 충(忠)을 중시하는 유교적 성향이 강하고, 신도와 불교도 이에 가세하여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집단주의 문화를 이끌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특징을 집단적 유교성향의 문화로 본다면 이는 칼빈주의가 제시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단 이선복(2020)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에도 일본에 믿음의 신실한 크리스천 경영자들이 있었으니, 소니의 이부카(井深大), 파이오니아의 마츠모토(松本望), 모리나가의 모리나가(森永太一郎), 라이온의 고바야시(小林富次郎), 아마자키빵의 이이지마(飯島 延浩) 등이 그 사

레이다. 특히 마츠모토는 회사명을 복음전기제작소로 정하고 철저히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았다. 모리나가와 이이지마는 제품을 판매하며 “하나님의 사랑” 쓴 피켓을 들고 다니며 을 전도를 하였다. 일본의 선교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음은 물론, 이들이 야말로 베버가 제시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직접 실천한 그리스도이란 생각이 든다.

4.2 일본 경제의 변천과 경영방식, 그리고 PESC 관계

2024년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일본의 GDP 규모는 4.2조 달러로 세계 4위이다. 27.9조 달러로 제1위인 미국의 15.0%에 불과하다. 5위 인도의 4.2조 달러와 비교해 5,000억 달러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욱이 1인당 국민소득은 34,554만 달러로, 세계 37위를 기록했다. 미국 88,026만 달러의 41.6%에 불과하다, 36위로 34,653만 달러를 기록한 한국 보다는 낮고, 38위 대만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일본으로서는 큰 위기임이 분명하다. 1968년 일본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였다. 그러나 2010년에 중국에게 밀려 3위가 되고, 다시 독일에 밀려 4위로 전락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놀라운 성장을 하여 경제선진국이 되었다. 연합군사령부(GHQ) 체제하 재벌해체와 농지개혁 등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1950년 한국전쟁의 군수물자조달 특수 붐을 누리며 연평균 10%(1956-73년, 연평균 9.2%) 고도성장을 하며 1968년에 세계 2위의 국민총생산(GNP) 국가가 되었다.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기업은 세계적 기업이 됐고, 1달러 360엔이던 엔화는 1971년 변동환율제로 전환하며 1달러 90엔대까지 가치가 상승했다. 그리고 1989년 닛케이평균주가지수는 38,915엔까지 올라 최고점을 보였고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다. 세계의 관심이 일본에 집중됐다. 또 이러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식상호보유제도(株式持合い制度),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 장기적 거래관행, 주거래은행 시스템 등 일본 기업의 경영방식과 경제, 금융, 회계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즉 일본적 경영방식(Japanese style management)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했다(미야모토 1995; 산지 1994; 이선복 2020).

그러나 1990년 이후, 일본경제는 경기침체속에 저성장을 계속하였다. 한국 경제와의 격차도 점점 줄어들었다. 1990년 한국의 11.06배였던 일본의 GDP는 2020년 3.08로 축소됐고, 1인당 국민소득도 3.84배에서 1.27배로 감소했다.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동 31년간 1998년에 생긴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 연평균 5.19%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데 비해 일본은 1.05%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고 있다(이선복, 2022). 일본으로서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인지 일본은 2019년 천왕이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바뀐 것을 계기로

1만엔권 화폐 초상화 인물을 후쿠자와 유키치에서 시부사와 에이이치로 바꾸고, 2024년부터 적용을 한다(이선복, 2023). 일본의 경제와 자본주의 정신이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본질을 근원적으로 검토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위 질문2와 관련해, 일본은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는가? 사유재산과 이익 추구가 인정되고, 생산수단과 산업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자본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일본은 앞에 언급한 것처럼 1968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규모를 달성한 나라이다. 일본은 미일화친 조약(1854) 이후 아시아 국가중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고 자본주의 받아들인 나라이다. 사유재산과 이윤추구를 인정하고,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해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1873년에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에 의해 복식부기에 해당하는 『장합지법』이 번역 출간된 이후 비즈니스에 있어 부가지식은 필수품이 되었(이선복, 2010).. 또한 산업자본의 원활한 형성을 위해 18789년에 도쿄와 오사카에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본시장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전통적 경영방식은 기업이 자기자본비율이 미국에 비해 낮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부채비율이 높으며 메인 은행 형식의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상호보유제도를 통해 개인 투자가 보호 보다는 회사간 협력의 집단 체제 방식을 특징으로 보여 주었다. 이는 질문1과 비교해 유교적 분위기 속에서의 집단적 방식, 내셔널리즘이 작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이선복(2024)에 의하면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에 있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인물로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가 있다. 그는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 실업가로서, 2024년부터 1만엔권 초상화 인물이 된다. 29세에 대장성 관료로 3년을 근무 후 실업가로 전환해 523개의 기업과 경제단체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여 경영을 이끌었다. 은행 금융부터 교통통신, 상공업(섬유, 종이펄프, 피혁, 식품, 요업, 철강, 수송용기구, 화학, 가스, 전력, 건설, 창고, 호텔, 무역), 광업, 농림수산업, 대외사업, 경제단체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산업 22개 부분에 걸쳐 기업과 경제 단체를 만들어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부사와는 어려서부터 논어와 대학을 공부하고 유교사상에 따른 도덕과 경제 합일설을 주장하였다. 그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시부사와의 자본주의는 이윤추구 및 합리적 의사결정의 면등에서 베버와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베버가 종교개혁 이후 칼빈의 교리에 따라 신앙윤리를 기초로 성화된 삶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였음을 제시한 것에 비해, 시부사와는 현세적인 논어 유교사상에 맞추어 공공의 이익을 반영한 사회적 책임을 제시하였다.

4.3 일본의 직업 노동윤리와 PESC 관계

베버는『종교사회학논집』을 통해 유교와 도교, 힌두교, 불교에서 아시아의 종교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금욕적 개신교는 성례전이나 신조에 있어도 합리성을 추구해 주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도교는 그 자체가 주술이고, 유교와 불교도 주술이 남아 있고, 금욕적 긴장 관계가 없어 자본주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였다. 그리고 오오와(2005)의 논문에서 의하면 이러한 논리에 대해 일본에서도 종교적 윤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나이토 칸지(内藤莞爾)가 도쿠가와 시대에 정토진종을 믿는 에도상인의 가훈에 주목하여 금욕주의와 직업 노동을 중시하는 상인도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벨러는 신도와 유교, 불교 삼교일치(三教一致)를 중시하는 석문심학(石門心學)에 상인에게 금욕과 가업에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인의 근면한 국민성에 대해 역사학자 하야미 유타카는 에도시대 후기 농민들이 토지 단위면적당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가족경영 방식으로 농민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로 성향에 근면한 윤리가 생기고 가족을 통해서 전승되어 왔음을 제시하였다. 더욱이 이는 메이지 이후에도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 한다. 오오와는 정토진종 신자가 많지 않고, 석문심학의 가르침을 받은 상인도 극히 일부이므로 이를 개신교 영향이라 할 수 없다 하였다.

일본인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정신은 매우 뛰어나다. 일이나 업무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성실한 편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적 경영방식은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임금제를 중시하여 왔다. 그렇게 보면 일본인의 직업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에서 위 자료는 흥미롭다 할 수 있다. 개신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과 결합시, 일본인의 모습은 대개 집단적으로 나타나 개인의 구원에서 출발한 서구 개신교 정신이 다름이 보인다.

V. 결 론

이상, 본 연구에서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PESC)』의 가설을 일본에 적용하여, 그에 대한 논쟁과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경제문제로서 역사적·신학적인 함의를 갖을지 살펴 보았다. 또한 경제선진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최근 저성장이 지속되며 다소 위기상황에 있음도 제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ESCE에 대한 일본내 연구로서, 1989년에 오츠카에 번역서를 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3권의 단행본이 출판되고, 또 25건이 넘는 관련 논문들이 발견되는 등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내용은 경제학적 관점의 자본주의 정신 분석부터 일본 종교와의 비교, 사회학적 관점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기독교 신학 관점의 연구는 많이 없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오오와(2005)의 논문을 이용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둘째, 일본은 개신교 비율을 0.4%로 매우 낮아 PESCE이 작동하기 힘든 환경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에도시대 이후 유교적 영향이 강해져, 충(忠)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형시켜 집단적 성향이 강한 내셔널리즘의 형성요인이 되었다. 또한 도교에서 변형된 신도와 불교의 경우도 국가체제에 옹호하는 성향을 보여, 개인의 가치와 구원을 중요시하는 개신교 윤리와 차이가 많음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선복(2020)의 연구를 통해 파이오니아사의 마츠모토를 포함해 10명을 크리스천 10명을 제시, 이들이야말로 베버가 제시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갖춘 경영자로 일본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를 설명하였다.

셋째, 일본은 전후 고도성장을 하여 1968년에 세계 제2위의 경제선진국에 되며, 주식상 호보유제도와 메인뱅크 시스템 등 경영방식이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저성장으로 GDP순위가 4위로 밀려남은 물론 1인당국민소득이 37위로 떨어져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교구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도의 집단성향 경제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가치와창의를 더 중요시하는 개신교적 윤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논문에서는 일본 근대화 과정에 520개가 넘는 기업을 설립한 시부사와(渋沢栄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다.

넷째, 일본인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며, 전통적으로 종신고용, 연공서열임금제와 같은 경영방식을 중시하여 왔다. 따라서 성경적 가치에 따라 개인의 가치와 창의를 중시하는 서구식 시스템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문화의 등장으로 개인의 가치와 문화가 변하고 그 다름이 존중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본 연구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집단 공동체적 시스템을 중시해 온 일본에게 무엇이 필요한 그 과제를 찾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베버가 제시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의문점을 발견해 추가로 다음 2개를 언급한다. 첫째,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 적용되었다. 칼빈주의의 특징에 주목하여 논문을 전개해 가면서도 칼빈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기독교 강요』에 대한 분석을 결여한 채, 리처드 박스터 (Richard Baxter)의 설교에 지나치게 의존해 오류를 범하였다.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이 창세전 이미

예정된 것으로 태함을 받을지 못받을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인간은 중보자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義)에 이를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해 하며 성화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존 칼빈, 기독교강요 제3권21장, 1559). 즉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 거듭(중생)하며, 자신의 죄악을 고백(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신앙)으로 의인이라 칭함(칭의)을 받고 자녀가 될수 있으며(양자), 또 이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절제된 삶(성화)을 살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견인)으로 하나님을 영광(영화)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박스터는 도덕적인 의무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고, 겉으로는 청교도적 칼빈주의이나 실제로는 알미니안적 신학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베버가 박스터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들여 직업을 통한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논문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였음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화될 것을 많이 강조하였지만,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양낙홍, 2003).

둘째, 베버가 금욕적이란 용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점에 문제가 있다. 금욕적(禁慾的)이란 인간이 하고 싶은 어떤 욕구나 욕망을 억누르거나 참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은혜의 종교이지 금욕이 아니다. 김충호가 2000년에 번역한 『기독교강요』를 기초로 본 연구자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금욕주의는 2회, 금욕은 11회, 직업도 7회의 사용에 불과하다. 반대로 주로 사용된 용어는 믿음 1179회, 은혜 845회, 구원 577회, 부르심 105, 소명 81회, 절제 65회 등이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이다. 믿음을 통해 받은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그 이후 성화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교이다. 따라서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칼빈도 사치와 낭비를 하지말 것 등 그리스도인으로 필요한 생활하도록 강조하였다(나용화역,1992). 즉 베버의 금욕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금욕 생활이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베버가 인식했다면 논문의 내용도 오해없이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본 연구는 아직 진행중인 상황이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자료가 방대할 정도로 많다. 위에서 베버 논문의 문제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그가 제시한 가설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계속 보완해 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강성화(2006),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8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1-129
- 김영태(2011),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 기원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윤리연구, 제81호, 129-153
- 김은수(2021), 비교종교학 개론, 대한기독교서회
- 김재진(2003), 종교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방식- 막스베버를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제1권 제1호, pp. 67~82
- 김주환(2002),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대한기독교서회
- 사와 마사히코 (1995). 일본 기독교사, 대한기독교서회.
- 송영목(202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다차원적 읽기, 향기도서출판
- 양낙홍(2003), 조나단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부흥개혁사
- 양낙홍(2013),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신학적 분석과 평가, 『성경과 신학』 66, 189-225.
- 윤진숙(2010),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법학논총(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4, 1-18
- 이갑두(2020), 칼빈의 신앙과 경제윤리 그리고 제네바 변혁의 관계, 로고스경영연구, 18(4), 1-26
- 이동호(2019), 칼빈의 경제윤리와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제43집, 189-217
- 이상규(2007),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선복(2010a), 일본식 회계모델의 구축과 패러다임 변화, 한일경상논집, 제49권, 41-69
- 이선복(2010b), 후쿠자와 유키치 『장합지법』이 일본 근대복식부기 형성과정에 미친 영향, 일본근대학연구 제30집, 378-391
- 이선복(2019), 성경적 관점에서 본 회계윤리, 로고스경영연구, 17(1), 1-20.
- 이선복(2020a), 한일의 거시경제 변화와 선교적 함의 고찰, 신앙과학문, 25(2), 183-210
- 이선복(2020b), 성경적 가치관에 따른 일본 CEO 경영연구, 한일경상논집, 80, 187-209
- 이선복(2021), 학문과신앙의 과목도입 성과 : D대학 사례, 신앙과학문, 26(3), 125-155
- 이선복/이시은역(2021), 3분변증: 성경의 관점에서 나아갑시다, 中川健一(2019), 3分でわかる聖書, 도서출판 디자인
- 이선복(2023.3), 기독교 대학 설립의 선교적 의미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21(1), 21-42
- 이선복(2023.6), 일본의 신학교 및 신학교육에 관한 현황 분석과 함의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1(2), 57-82

- 이선복(2023.12), 일본 자본주의 아버지 『시부사와 에이이치』와 기독교 사상 연결점 고찰 로
고스경영연구, 21(4), 83-103
- 정성구(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킹덤북스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9). 2019 세계시장 진출전략 I 일본. KOTRA.
- 青木茂(1979), キリスト教と現代文明, 18, 182-187
- 朝倉恵俊(1975), セクテと社会変革-M.ヴェーバー「セクテ論」に見られる社会変革の諸相, 社会
学評論, 26(1), 2-19
- 荒川敏彦(2003), ヴェーバー宗教社会学における〈正統と異端〉, jstage, 16, 261-272
- 今野 元(2020), 『マックス・ヴェーバー—主体的人間の悲喜劇』, 岩波書店
- 李善馥(2023.9), “韓日における基督教信仰の比較の意味: 基督人経営者と経済指数の変化を含めて
-, Logos Management Review., 21(3), 49-70,
- 池田昭(1970), マックス・ウェーバーにおけるアジア宗教分析の基本的枠組, とくに日本宗教の位置
づけをめぐる, 社会学評論, 20(3), 2-17, Akira Ikeda, M. Weber's View of Japanese
Religion - from the view of frames of reference of the Asian religion -
- 伊藤哲(2018), 資本主義における宗教精神, 関東学院大学「キリスト教と文化」第 17 号, 19-30
- 五野井隆史 (2017). 日本キリスト教史. 吉川弘文館
- 上野山達哉(2016), プロテスタントの仕事倫理と天職概念の展開——マネジメントおよびプロ
フェッショナリズムとの関連を中心として——, 商職学論集 第 84 巻第 3 号, 189-204
- 上山安敏(1977), ウェーバー思想における権力と人権-社会史的分析を中心として, 法哲学年報,
64-83
- 大和正典(2005), 資本主義的發展と宗教倫理および個人主義との関係 : 主要論争の概観一, 帝京国
際文化 第18号, 1-32
- 岡澤憲一郎(2015)ウェーバーの宗教観—「近代の経済エートス」の形成—, 名古屋学院大学論集
社会科学篇 第 51 巻 第 3 号 pp. 19—43, Kenichiro OKAZAWA, Max Webers Sicht
des Protestantismus: Entstehung des Modernen Wirtschaftsethos
- 小笠原真(1981), 日本の近代化と浄土真宗, マックス・ヴェーバーの問題意識及び分析視角との関
連での二、三の問題について, 社会学評論, 32(2), 57-71,
- 小倉充夫(1974), 「資本主義の精神」論と社会主義の精神, 社会変革と民衆の生活態度に関する比
較社会学的一考察, 社会学評論, 25(1), 2- 17
- 大塚久雄(1972), マックス・ヴェーバーにおける資本主義の精神再論, 日本学士院紀要, 30, 131-145
- 大塚久雄訳(1989), 『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の 倫理と資本主義の精神』, 岩波書店
- 小野静雄(1986), 日本プロテスタント教会史 (上)明治・大正篇, (下)昭和篇, 聖恵授産所出版部,
- 김산덕역(2012), 일본교회사, 칼빈아카데미
- 折原浩(2003), 『ヴェーバー学のすすめ』, 未来社

- 梶山力訳(1994),『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の倫理と資本主義の《精神》』,未来社
- 勝又正直(1992), 西洋の主体性の系譜学としてのヴェーバー宗教社会学, 生活史から見た『宗教社会学論集, 社会学評論, 43, 1-15
- 藏本忍(1984)M・ヴェーバーの近代資本主義の生成に関するテーゼについて—特にF・ラッハファールの批判に関連して—, 政経論叢, 53(1), 193-227
- 小林純(2001), マックス・ヴェーバー研究の現在, 経済学史学会年報 第40号, 1-12, Jun KOBAYASHI, Recent State of Max Weber Studies
- 小林 純(2015),『マックス・ヴェーバー講義』, 唯学書房
- 後藤牧人 (2011). 日本宣教論. イーグレース(CHRISTIAN TODAY コラム 第1～115回
- 島和重(2007)『戦後日本の会計制度形成と展開』 同文館
- 椎名重明(1996),『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と資本主義—ウェーバー・テーゼの宗教史的批判』, 東京大学出版会
- 麟麟壘醜曜(2006), 日本のウェーバ「堂容における霊具週の問題」, 6, 4-33
- 下野葉月(2019),「宗教と科学」に関する歴史的考察, 現代宗教 2019, 155-175
- 菅野正(1971), M・ウェーバーにおける近代社会の「合理性」について—形式合理性」と「実質合理性」の問題, 社会学評論, 21(4), 2-16
- 長部日出雄(2008),『マックス・ヴェーバー物語—二十世紀を見抜いた男』, 新潮社
- 中山元訳(2010),『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の倫理と資本主義の精神』, 日経BP
- 野口雅弘(2020),『マックス・ウェーバー—近代と格闘した思想家』, 中央公論新社
- 高梁幸八郎・永原慶二・大石嘉一郎(1993), 日本近代史要説, 東京大学出版会
- 東京基督教大学 国際宣教センター (2019). 日本宣教リサーチ 調査レポート(2018年度).
- 村上文司(2012), マックス・ヴェーバーの学問的生涯と社会調査, 現代社会学研究, 第 25, 73-80
- 細谷昂(1966),「現代」とウェーバーの官僚制論, 社会学評論, 17, 74-100
- 星俊郎(1995), 経営倫理への一考察—マックス・ヴェーバーの所説を顧みて, 日本経営倫理学会 誌, 2, 33-43
- 折原浩(1965), マックス・ヴェーバーと辺境革命の問題, 社会学評論, 16, 57-82
- 間宏(1975), 文化と企業者活動についての諸理論の検討, M・ウェーバー以後の理論的展開, 経営史学, 10, 5-27
- 文化庁 (2022). 宗教年鑑. 文化庁.
- 牧野雅彦(2002), ウェーバーの政治理論 —『職業としての政治』を中心に, 年報政治学, 53, 3-22
- 宮本又郎・安部武司・宇田川勝・沢井実・橘川武郎 (1995), 日本経営史—日本型企業経営の発展, 江戸から平成へ, 有斐閣, 정진성 옮김(20010, 일본경영사, 한울아카데미
- 三笥利幸(2019), マックス・ヴェーバーと「近代文化」—『倫理』論文は何を問うのか(1)—ウェーバーと近代文化, 立命館産業社会論集, 55(2), 17-33,
- 森重雄(1983), ウェーバーの教育社会学—教育システムの理論の系譜と課題(2), 教育社会学研 第

38集, 185-1997

森喜啓一(2020), 『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と世俗化社会との関係への一考察』, キリスト教学研究室紀要, 8, 15-26

橋本 努(2019), 『解説ウェーバー, プロテスタンティズムの倫理と資本主義の精神』, 講談社

羽入辰郎(2002), 『マックス・ヴェーバーの犯罪—『倫理』論文における資料操作の詐術と「知的誠実性」の崩壊』, ミネルヴァ書房

羽入辰郎(2007), 『マックス・ヴェーバーの哀しみ—一生を母親に貪り喰われ男』, たPHP研究所

樋口辰雄(2001), 書評 内田芳明 『ヴェーバー歴史の意味をめぐる闘争』 岩波書店, 2000, 経済学史学会年報 第40号, 97-98

山口陽一(2023), 『近代日本のクリスチャン経営者たち』 のめざすもの, 로고스경영연구, 21(3), 1-17

James I. Packer(1985), Among God's Giants: Aspects of Puritan Christianity, 박영호(2001), 청교도 사상, 기독교문서선교회

John Calvin(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원광연역.(2018), 기독교 강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J. Herbert Kane(1997), Understanding Christian Missions), 신서균역(2007), 기독교 선교 이해, CLC

Max Weber(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202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Ronald S. Wakkace(1988),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나용화역(1992), 칼빈의 기독교 생활원리, 기독교문서선교회

Williston Walker(1986),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손인실역(2021), 기독교회사, 크리스천 다이제스트